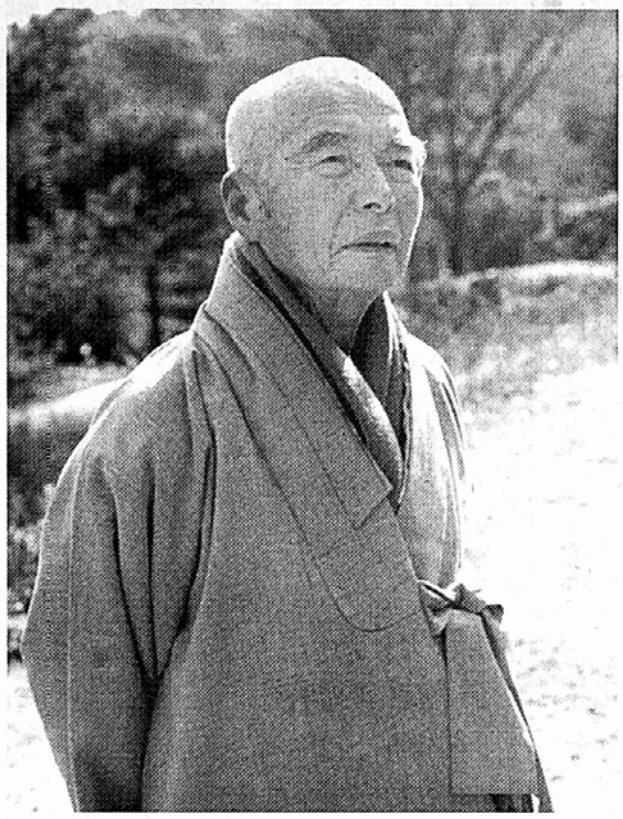
끊어지지 않게 이어줘야



◇정공스님은 "아미타불의 미묘본심을 깨친 자라야 능히 미묘한 법을 깨닫고 자재함을 얻어 중생제도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살의 영향으로 영문도 모른 채 다섯 살부터 '나무아미타불'을 따라 부르며 절에 다녔다. 11세때 대구로 전학하고 서당에도 다니면서도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염했다. 나이가 들면서 아미타불의 본원(本願)을 알게 되면서 더욱 염불 정근에 힘썼다. 나중에는 '나무아미타불'을 얼마나 외웠던지, 꿈속에서도 염불이 이어져, 18세에 염불삼매에 들었다고 한다그 내용은 기사화하지 말라는 스님의 신신당부에 따라 생략).

염불삼매를 얻은 후 스님은 성인이 되자, 이 세상을 정토로 만들고자 출가를 발원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수년간 전국을 떠돌며 선지식을 만났으나, 스승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다 근세의 선지식인 전강 선사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출가인연이 맺어졌다.

해인사 설법전에서 처음으로 전강스님의 법문을 우연히 들게된 정공스님은 전강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기로 마음먹고, 법문이 끝난뒤 스님이 계신 방문을 똑똑 두들겼다.

"누구냐?"

"큰스님을 친견하러 왔습니다."

"들어와라."

정공스님은 삼배를 올린뒤 간절한 마음으로 전강스님께 여쭈었다.

"스님, 제가 출가하려고 3년동안이나 스승을 찾아 헤매었는데, 오늘에야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꼭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전강선사는 정공스님을 보고 한눈에 법기(法器)임을 알아보고 제자로 받아들였다. 활구선(活句禪)으로 한국의 근세 선풍을 드날린 전강선사는 이때만해도 경허-만공으로 이어지는 덕숭산문의 가풍을 잇는 고승으로 추앙받고 있었다. 정공스님은 전강선사를 따라 곡성 태안사에서 계를 받은 후 6년간 무주 안국사에서 홀로 정진했다. 이 곳에서의 수행은 '내가 곧 부처'라는 일념으로 아미타불을 염했다.

공부를 마친 후 인천 용화사로 스승을 찾아가니 전강선사는 "이제 정공은 용화사에서 나를 시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부터 정공스님은 전강선사를 모시고 수행하며, 스승으로부터 '판치생모(板齒生毛)'라는 화두를 받고 화두일념에 빠졌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께 묻되,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입니까(如何是祖師西來意)?"하니 답하시되, "판대기 이빨에 털이 났느니라(板齒生毛)" 하셨다.

그러면 조주 스님은 어째서 '판치생모'라 했을까? 이 화두도 '무자' 화두와 같이 '판치생모'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판치생모'라고 말한 조주 스님의 뜻에 있는 것이니, 정공스님은 이를 참구해야 했다. 스승인 전강선사는 화두드는 법을 이렇게 설하곤 했다.

"화두가 잘 된다, 잘 안된다, 망상이 생긴다, 마음이 산란하다 등의 생각이 있으면 화두의 순일지묘(純一之妙)가 없게 되는 것이니, 일어나는 망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상관도 말며 두려워도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는 그저 알 수 없는 의심 하나만 간절히 간절히 일으킬 것이며, 없어지거든 또 일으키고 부지런히 끊어지지 않게 자꾸 이어주어라."

스승의 가르침대로 화두를 지어감에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정공스님은 화두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판치생모'를 타파할 수 있었다고 한다. 너무나 수월하게 본참공안을 타파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정공스님은 이렇게 설명했다.

"이미 염불삼매로 득력한 선정력이 화두삼매마저 용이하게 터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화두를 타파하고 보니, 화두삼매와 염불삼매가 다르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공스님은 학인들에게 화두와 염불에 있어 호흡법에 주의하고 단전에 의식을 집중할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친다.

화두·염불 삼매는 다르지 않아
호흡 유의·단전에 의식 집중을

'판치생모' 타파로 스승의 인가를 받은 후, 전강문하에서 절차탁마하던 정공스님은 전강선사의 열반이후 인천 용화사를 떠나 토굴정진에 들어갔다.

23세에 견성한 후 당시 6대 선지식인 혜봉, 혜월, 한암, 응성, 보월, 단공 선사들과 거량하며 인가를 받은 전강선사. 25세에는 만공 선사로부터 법맥을 전수, 전법게를 받았던 스승은 1975년 1월 13일 인천 용화선원에서 입적에 들기 전 정공스님에게 "내 법을 전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공스님은 스승의 입적 후 3년간 인천 용화선원에서 대중을 지도하다 1978년 3월 문경 대승사 묘적암에 주석하며 정진에 들어갔다. 묘적암에서 정공스님은 "화두가 잘 된다, 잘 안된다, 망상이 생긴다, 마음이 산란하다 등의 생각이 있으면 화두의 순일지묘가 없게 되는 것이니, 일어나는 망념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상관도 말며 두려워도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는 그저 알 수 없는 의심 하나만 간절히 간절히 일으킬 것이며, 없어지거든 또 일으키고 부지런히 끊어지지 않게 자꾸 이어주어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철저히 지켰다.

묘적암에서 정공스님은 3년간 용맹정진하여 확철대오하고 스승의 인가를 받았다. 묘적암에서 정공스님은 3년간 용맹정진하여 확철대오하고 스승의 인가를 받았다. 묘적암에서 정공스님은 3년간 용맹정진하여 확철대오하고 스승의 인가를 받았